

“누구나 믿고 즐길 수 있는 질 좋은 송어 키울 것”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우수 귀어인 선정 송어 양식 정근영 씨

귀어 3년·양식 2년 만에 100t 출하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 쏟을 것

“우수귀어인'에 선정돼 자부심을 느낍니다. 소비자들에게 더욱 질 좋고 맛있는 송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선정한 우수귀어인에 뽑힌 정근영(35·사진)씨는 최근 광주시 동구 ACC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전남 우수귀어인' 시상식에서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귀어 3년차 새내기인 그는 여수시 남면 화태마을에서 송어양식을 하고 있다. 정씨는 “저 집 송어 좋다”라는 말을 듣고있다. 누구나 믿고 즐길 수 있는 송어를 키울 것”이라며 “안전하고 맛 좋은 수산 먹거리 생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 나아가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 거제에서 직장을 다니다 지난 2019년 12월 여수 남면 화태마을로 귀어했고, 다음 해 1월 곧바로 송어 양식에 돌입했다.

정씨는 처음부터 송어 양식을 꿈꾼 것은 아니었다. 여수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지만 대학을 경남 진주로 진학하면서 여수와 멀어졌다. 2011년부터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취직해 8년간 일했다. 당시 해



운·조선업 불황이 계속됐고 '회사 사정이 올해는 나아지겠거니' 하며 기다린 것이 몇 년간 이어졌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던 그에게 어느 날 불현듯 '바다'가 스쳤다. 언젠가는 고향에 정착해 살고 싶었던 그는 '운명'처럼 송어를 만나게 됐다.

“휴가차 여수에 있는 부모님 댁에 왔다가 송어 유통업을 하는 사촌형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가두리 양식

을 접했고 흥미가 생겼죠. 사실 평소에도 미래 먹거리 등 여러 가지 비전이 '바다'에 있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귀어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정씨가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은 약 900평(3000㎡) 크기다. 이곳에서 그는 송어 30만 마리를 키운다. 그의 일과는 송어 먹이(사료)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바다 온도가 17도 정도면 하루에 한 번 준다. 여름철 수온이 24~25도에 이를 때면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밥을 준다. 먹이를 주고 나면 가두리 양식장을 살핀다. 송어가 든 양식장 그물에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살피고 그물도 수시로 교체해줘야 한다.

30대 중반 이른 나이에 인생 2막을 연 근영씨는 운신경을 송어 양식에 집중했지만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었다. 양식 첫해인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송어들을 키워 팔기도 전에 대부분이 폐사한 것. 그 당시 근영씨의 심정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막했지만, 올해 귀어 3년, 양식 2년 만의 첫 출하를 한다는 그는 100t의 송어를 출하해 약 10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가두리 면적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20칸으로 시작했는데, 조만간 30칸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화태마을이 외지인에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내년엔 귀어인들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광산구 저소득층에 김치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양진식)는 최근 광산구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 저소득층 가구 100세대에 전달했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제공)

하남산단관리공단, 광산소방서 위문방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박홍식)은 지난 10일 연말을 맞아 국민 안전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광주 광산소방서를 방문, 방역마스크와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제공)

김영주 건설협 광주지회장, 전남대병원에 기부금 5000만원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김영주 회장(왼쪽) 최근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저소득계층 환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한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지회 제공)

생활문화축제 영상 씬 공모전 광주 북구 각화문화의집 1위

광주시 북구 각화문화의집이 최근 '2021 전국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 영상 씬(Scene)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각화문화의집은 올해 광주문화재단에서 예술동호회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했던 예술동호회 활동 영상을 제출했다. 각화문화의집은 모듬북 외 8개 동아리와 함께 버스킹공연 등을 통해서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공모 결과 영상은 시민 투표 2만9000표를 얻고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각화문화의집 제공)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MBC 다크프라이ม์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고 김용균 3주기 특집 다크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게(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연모(재)	45 주라기캡스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극한대투 야생들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그해 우리는(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UHD 스테라(재)	4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3	35 미니다(재)	00 KBS 뉴스타임 10 마카엔로니(재) 30 TV 유치원	20 뽀빠뽀 좋아좋아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크 50 노래가 좋아(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특집 랜잡이 가족이니까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나도 남도 행(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2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50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사랑의 파베기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백종원 클라쓰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연모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45 개는 훌륭하다	30 피의 게임	00 그해 우리는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12	1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세상의 모든 다크	10 스포츠 매거진 5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우당탕탕 은하안전(재)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코코몽2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9:00 하트가 빛나는 순간
07:15 출동! 슈퍼핑크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0 한국의 돌래길
07:30 숲속 배달부 빙빙	14:10 EBS 다크프라이ม์	19:50 다류영화 길 위의 인생
0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딩동댕 유치원	15:25 클래식 e	<겨울엔 여기-히말라야 트레킹, 네팔>
08:30 엄마 까투리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8:45 방구대장 뽀빠이	16:00 마사와 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1부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
09:00 마법버스 타요	16:1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21:50 EBS 다크프라이ม์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3:0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55 XR 우주대기획 : 더 홈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3일(음 11월 10일 乙未) ☎ 010-9790-8237

<p>36년생 길사가 모여져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48년생 방심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60년생 형식에 얽매지 말고 내용에 충실하라. 72년생 단순하게 여긴다면 복병을 만나게 된다. 84년생 상태가 계속된다면 충동하게 되어 있다. 96년생 재반사가 서서히 풀려나갈 것이니 마음편하게 가계도 된다.</p> <p>행운의 숫자 : 41, 67</p>	<p>42년생 임시적이나 만큼 전혀 집착할 필요 없다. 54년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66년생 일의 형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성취이다 할 것이다. 78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면서 완만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90년생 예리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느니라. 02년생 무심코 방치한다면 더 악화되리라.</p> <p>행운의 숫자 : 23, 72</p>
<p>37년생 처음에는 거칠더라도 점점 부드러워질 것이다. 49년생 예전과 같지 않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61년생 조처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73년생 중요한 사항이 언급될 것이니 만전을 기해야 하느니라. 85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차차 쉬워질 것이다. 97년생 최소화할 수 있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리라.</p> <p>행운의 숫자 : 16, 73</p>	<p>43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적결이 시급하니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 55년생 활이 꺾이고 화살이 다 떨어진 이치이다. 67년생 본능적이라면 위험해지지는 법이다. 79년생 잘 풀려 나가는 양상이다. 91년생 흥성이 지고 감성이 떠오르는 기세이다. 03년생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 부모 아이들은 편이 낫겠다.</p> <p>행운의 숫자 : 39, 70</p>
<p>38년생 관련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는 판국이다. 50년생 지대한 호평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62년생 똑같은 속성으로는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74년생 국면을 확실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86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98년생 어려움은 지나갔으니 안심해도 되느니라.</p> <p>행운의 숫자 : 38, 99</p>	<p>32년생 보지만 말고 직접 해야 하느니라. 44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56년생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라. 68년생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80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92년생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p> <p>행운의 숫자 : 47, 87</p>
<p>39년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국이다. 51년생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기하게 된다. 63년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라. 75년생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너무나 공허하였다. 87년생 미리 준비해 둔다면 면치않아 힘이 될 것이니 만전을 기하라. 99년생 양질을 추구해야 합리적이다.</p> <p>행운의 숫자 : 07, 76</p>	<p>33년생 단처럼 잘 잡아안다면 진전을 보이리라. 45년생 속도를 늦추고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이다. 57년생 맹목적이었던가는 오랫동안 후회하게 되어 있다. 69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81년생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93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p> <p>행운의 숫자 : 40, 90</p>
<p>40년생 이제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52년생 바타이 나서 극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64년생 기초가 되는 재원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옳다. 76년생 파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득의 폭이 굉장하다. 88년생 사방이 온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질까 두렵다. 00년생 재정비에 확실히 신경을 써야 한다.</p> <p>행운의 숫자 : 01, 83</p>	<p>34년생 머지않아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46년생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에 충실해야겠다. 58년생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다가 올 일에 신경 쓰라. 70년생 행운으로 얻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82년생 흐리던 날씨가 개이고 뻥하고 해가 뜨리라. 94년생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p> <p>행운의 숫자 : 06, 51</p>
<p>41년생 소망하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면 이루어지겠다. 53년생 자선이 될 만한 것이 보이니 놓치지 말라. 65년생 쌓아놓은 기반으로 인해 수월해진다. 77년생 의심스럽다면 차치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89년생 주관에 사로잡힌다거나 과잉 판단을 한다면 손실이 따른다. 01년생 일관된 진행이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02, 66</p>	<p>35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47년생 자신이 없다면 행하지 말라. 59년생 물고기가 출현하면 번하어 용이 되는 형상이다. 71년생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83년생 대세에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95년생 버스 지나간 후에는 손을아놔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p> <p>행운의 숫자 : 45, 92</p>